

새해 첫날 광주 93명·전남 42명 확진...코로나 확산세 여전

제조업체 등 집단 감염 잇따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도 확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새해에도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확진됐고,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발 집단감염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93명, 42명 등 135명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외국인인 다수 근무하는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3명의 확진자가 13명 나왔다. 요양병원 3곳, 초등학교, 유치원 등 기존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또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이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 청장은 지난달 27일 장학금 기탁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를 뒤인 29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수동감시에 들어갔고, 추가 검사에서 확진됐다.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을 완료한 서 청장은 델타 변이형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서 청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다음 날인 28일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이 모

인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방역 당국은 그 이튿날 1차 검사에서 서 청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른 구청장들이 추가 확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서 청장이 확진되자 서구비서실 소속 직원 3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전남에선 지난 1일 신규 확진자 42명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목포 11명, 순천 10명, 여수 4명, 장성 4명, 광양 3명, 완도 3명, 신안 2명, 담양·고흥·화순·해남·무안 등 각각 1명이다.

광주시에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밤 9시까지 등 기존 방역 수칙을 내달 16일까지 대부분 유지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의 시작시간을 밤 9시까지 허용했다.

감염 취약 분야 종사자와 운전자 선제검사를 계속 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연근해 어업 허가 어선,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은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목욕장업, 재가 복지 장기 요양기관, 유흥시설 PCR 검사 주기는 1주다. 추가 접종(부스터 샷) 14일 경과자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됐다.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로 늦춘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해에도 늘어난 검사 행렬 2일 오전 광주 서구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수도권·영남권 2시간대 철도망 고속 질주

올 정부 예산 9164억 반영 SOC 르네상스 실현 탄력

전남도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권·전남' 비전 실현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수도권, 영남권과의 2시간대 철도망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한 철도분야 예산은 9164억원으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에 더욱 힘을 실어 줬다. 이는 지난해(7896억원)보다 16.1%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6050억원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보성-임성리 간 철도사업 246억원, 진주-광양 간 경전선 철도사업 468억원을 확보해 내년 완공 후 2023년 개통 예정이다.

특히 광주송정-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철도 사업에도 2400억원이 반영돼 '보성-순천' 구간을 2025년까지 완공해 '보성-임성리 철도'와 함께 목포-부산 전 구간을 연결하게 됐다. 현재 목포에서 광주를 경유해 6시간36분 걸리던 부산행 열차가 2시간24분대로 4시간 이상 단축돼 만나질 생활권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3개 노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익산-여수를 잇는 노선이 다. 총연장 89.2km에 총사업비 3조357억원을 들여

기존 전라선의 굴곡 구간을 신설·개량한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당초 2시간40분대에서 34분이 단축된 2시간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져 저속철도라는 오명을 벗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남중권, 전남 동부권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1조5235억 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을 시작으로 나주 남평과 혁신도시, 나주역을 잇는 광주-전남 상생노선이다. 광주 지하철과 광역철도를 연결해 편안하고 신속한 이동수단 역할이 예상된다.

달빛내륙철도는 총 198.8km구간에 4조515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를 잇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신남부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연결을 위한 남북방향 철도뿐만 아니라 동서를 잇는 철도길도 열리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으로 호남권 주민의 편의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대감 높아지는 광주의료원 설립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개선안 기재부, 이달 내 최종안 확정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기재부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예타 조사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다, 이재명 대신 후보도 공공병원 확충 등을 주요 의료 공약으로 발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의료원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지방공공의료원 조기 설립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은 포함된 반면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은 제외됐다.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은 올해 국비에 각각 10억원씩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분류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예타 조사에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를 요구해왔다. 예타 재조사

도 예타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10개월 정도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예타 재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올해 설계착수 등 사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재조사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광주시와 울산시가 요구하는 예타 면제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라 이미 대전, 서부산, 경남 의료원 등도 예타 면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도 지난해 11월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달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지난달 31일 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서민과 소외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 정책을 공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안으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 구함

- 캠핑장, 애견카페할 자리
- 담양등 광주시 외곽지역
- 임야등 3천명 이상
- 매입금액 1억 정도
- 바로 매입합니다

문의. 010-3605-5000

www.kps.co.kr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한전KPS!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가 ESG 경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
환경
Environment

지속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 확대

S
사회
Social

국민 체감·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G
지배구조
Governance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투명·안전경영 강화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전KPS주식회사